

[종합]

유골 안치 봉화산 정토원 발 디딜 틈없는 조문인파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 조성 사업 진통

예정지 주민들 구역조정 요구

盧 前 대통령 영결식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이후 처음 맞는 휴일인 지난 달 31일 봉화마을과 봉화산 정토원은 끝없이 찾아오는 조문 인파가 줄을 이었다. <관례기사 3·4·7·12면>

이날 오전 일찍부터 노 전 대통령의 사자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에는 수만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나 장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진행되는 삼유제는 봉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직 정식으로 유해를 안장한 것도 아니어서 처리되지 않았다. 영결식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는 조문객을 위해 철거하지 않은 마을회관 앞 분향소에는 200~300m씩 늘어선 조문객들이 30분~1시간을 기다려 한 번에 50~100명씩 조문을 하는 열기가 이어졌다.

주말 조문객 수만명

○-지난달 29일 장례식 이후에도 많은 조문객들이 유골이 안치된 봉화산 정토원을 찾고 있어 노 전 대통령 사자 입주부터 봉화산으로 통하는 등산로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

적거렸다. 정토원 법당인 수광전에는 분향을 하려는 행렬이 100m 이상 이어졌고 지난달 31일 오전에만 1만명에 육박하는 조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정토원은 추정했다.

일부 조문객은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부엉이바위를 카메라에 담거나 부엉이바위로 통하는 작은 다리에 국화와 불붙인 담배를 놓고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행적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명복을 비는 모습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은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논의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의 모금운동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봉화마을 취재진용 임시 사이트에 올린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직 유족들이 허황해하고 있고 안장 등 장례절차를 남아 있어 추모사업이나 기념사업 등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 글에서 "향후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민의 추모의 뜻을 받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비석이나 추모사업을 위한 자발적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지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정중하게 고사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비서관은 "(유가족은) 지난 국민장 기간 저희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애도하고 추모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경호관 3명 집중 조사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경호 전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A 경호부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호부장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투신사실을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30일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과 함께 근무했던 신모·다른 이모, 최모 경호관 등 3명도 불러 당일 경호와 수색, 병원 이송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사자 출발 전 행적에 관한 질문서를 유족 측에 보내 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달 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이 임시 안치된 경남 김해 정토원에 조문객들이 촛불로 노 전 대통령의 안식을 기원하며 '편안히 잠드소서'라는 글귀를 바닥에 만들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치러진 지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이 안치된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 수광전에서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자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에는 수만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나 장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진행되는 삼유제는 봉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직 정식으로 유해를 안장한 것도 아니어서 처리되지 않았다. 영결식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는 조문객을 위해 철거하지 않은 마을회관 앞 분향소에는 200~300m씩 늘어선 조문객들이 30분~1시간을 기다려 한 번에 50~100명씩 조문을 하는 열기가 이어졌다.

주말 조문객 수만명

○-지난달 29일 장례식 이후에도 많은 조문객들이 유골이 안치된 봉화산 정토원을 찾고 있어 노 전 대통령 사자 입주부터 봉화산으로 통하는 등산로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현재의 예정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의 공동산업단지라서 광주와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데다 마을을 제외하고 인근 편야 지대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지형이 낮아져 배수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주민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토지공사는 지난달 28일 월야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사업 기본계획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9일에는 광주 광산구 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담지는 광주 광산구 삼계동과 함평군 월야면 408만1천㎡에 5천679억 원이 투입돼 2014년까지 조성되며, 생물·약학, 신소재, 자동차, 광산업 관련업체들이 유치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슬로시티 관광 명품화 총력

체험상품 개발·주민 참여 구역 마련

전남도가 슬로시티(Slow City)를 명품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험상품 개발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 내부 규약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담양 창평과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장흥 유치·장평 등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인증 지역에 마을별 특성에 맞는 한국형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성공 모델을 구축, 녹색성장시대에

결맞는 명품 관광상품으로 육성키로 하고 지역민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슬로시티 인증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전남도와 담양·장흥·완도·신안 등 4개 군과 관계 전문가, 슬로시티 추진 협의회 등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라는 브랜드를 상품화하기 위해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마을 내부 규약을 마련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발전연구원 이전

3일 무안 남약신도시

전남발전연구원이 17년6개월여에 걸친 광주 생활을 마감하고 3일 전남도청 인근 남약신도시로 이전한다.

전남발전연구원은 무안군 삼향면 남약신도시에 들어선 '전남개발빌딩'에 입주, 11~13층까지 3개층을 사용하게 되며 오는 9일 입주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전남개발빌딩은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으로, 전남도 출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총사업비 255억원을 들여 착공 2년여만에 완공했다.

한편, 전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991년 12월 20일 개원한 뒤 1995년 7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2007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J프로젝트 부동산구 5일 승인 신청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계획 사업지구 중 한 곳인 부동산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오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J프로젝트 부동산구에 대한 사전 환경성 주민설명회와 각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주관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 에 오는 5일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동산구는 J프로젝트 개발 계획 사업지구 중 한 곳으로 썬카운티(주)가 맡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면적이 1천41만여 ㎡인 부동산구에는 사업비 5천335억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마arina, 게임테마파크 등이 들어서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는 부동산구에 대한 개발 계획 승인 신청 이후 오는 6월~9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중앙부처 협의 거쳐 10월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기업도시심의위원회 개발계획 심의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구 6곳 중 삼호(9.2km)·구성(21.8km)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난 2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했다.

이와 따라 전남도는 올 상반기 중 2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나서 올 연말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금·건강보험 연체 계산

월 단위로 일 단위로 변경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내게 되는 가산금의 계산 방식이 현행 월 단위로 앞으로는 일 단위로 변경돼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월 단위로 가산금 계산방식이 기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내던 데서 앞으로는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 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유연’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광고접수안내

광주·전남·인천·대구·부산
www.kwangju.co.kr
☎ 062-227-9600

회사문화합성 및 전기공사업장도양수공고

주식회사 한일건설(주)는 "건"과 "주"의 주식회사 이력관리대상 ("법)은 2기 임직원추천대상에서 상에서 규정하는 회사문화합성합성에 따라 "건"과 "주"의 전기공사업장 문화합성의 의무를 지닌 회사에 대해 "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은 추후에 본 회사는 "건"과 "주"의 권리와 의무를 "법"이 승계하기로 결의하고, 전기공사업장(모)에 인사청산 후 해당 전기공사업장 업무가 전기공사업장에 양도되는 전기공사업장 업무의 권리와 의무를 대당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은 추후에 해당 전기공사업장 업무가 "법"에 규정된 기업문화합성 1기일 이내에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구 광주보훈병원 매각 전지입찰 공고

구 광주보훈병원(토지 건물 및 부속 건물 포함)을 일괄 매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표지	건수	면적	기타
내역	12,968.1㎡	15,351.51㎡	정확부동 49동	발전기실 205동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구학 아카데미

개강일정 안내

광주 10기 5월 29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장정역 4번출구 추진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기간: 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침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자격: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주1회 1년 과정
주요과목: 중의침구학/장성론/특수침법/중의방악학/중의인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요령중의대학대 자격증 및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

합법·운송처방
자격: 관심있는 분 · 기간: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주요과목: 제형운송처방/합법/정제요법/근육조정술 등
활법사, 운송처방사, 처방요법사 등 민간자격증 발급

전국대표번호: 1544-5359
광주분원: 062)236-3516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2009년 양달 5월에 개장하실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질기를 거머쥔 불공평한 묘, 개인이주주의 만민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덤과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묘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투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비싼 자연재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비 조상을 멀리 떨어져 신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전제지연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문의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임아급매

전남 나주 남평읍 노동리 산 72
6800평 도로접합
매가 1억
016-249-8656